

# “생활 속 행복, 평생교육서 찾아요”

평생교육을 만드는 사람

이태호 조계사 평생교육원 기획이사



생활 내 평생교육원 건립  
사회기여·불법홍보에 일조  
9월부터 교육과정 본격화  
전문 지도자, 힐링캠프 개설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수행을 통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 기획이사는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과정들을 개설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전문 지도사 과정이다. 계획하고 있는 지도사 과정 중 마인드케어 지도사와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이 가장 먼저 신설된다. 마인드케어 지도사는 마음의 관리 기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스트레스 관리사는 마음뿐만 아니라 운동, 음식을 통해 케어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 노조와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스트레스 힐링 캠프도 계획돼 있다. 향후 이런 캠프를 계층별, 주제별로 확대시킨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이 기획이사는 전국 주요 사찰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분명, 평생교육은 시대의 흐름이고 현대인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마음 산업’의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정부는 평생교육을 종교기관에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불교계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그래서 이 기획이사는 조계사 평생대학원을 ‘마음 치유’, ‘마인드 케어’를 주제로 삼았다. 최근 부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마을공동체 사업과 학교폭력 노출 청소년, 여성 정신건강 프로그램들 역시 불교가 가지는 ‘마음 치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시마을공동체의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조계사 평생교육원은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치악산서 발원하는 정토세상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 제15차 염불정진대회가 7월28~30일 치악산 자연학습원에서 열렸다. 치악산 강원도 자연학습원을 비롯해 구룡사 등에서 열린 이날 염불정진대회는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상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염불행자들이 동참했다. 첫날 입재를 시작으로 나무아미타불 1만주 정공, 향선염불, 촛불의식, 호미천도 의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다도 공연을 비롯해 바라불, 사물염불, 농악, 찬불가 공연, 천고·천수복과 회향 대동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치악산 전나무 숲 명상수행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 “삼척원전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불교생명윤리협, 삼척원전 건설 반대 성명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불교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범용, 박광서)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핵발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항구적이라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류와 못

생명을 근원적으로 파괴한다”며 “강원도 삼척 근덕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한반도의 마지막 청정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건설 강행의 과정에서 드러난 관제적 성격의 선전선동과 폭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우리는

예외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삼척 원전 반대와 함께 △ ‘탈핵’, ‘대안에너지 정책’으로의 정책 전환 △ 청정 생태지역 강원도의 보존 △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만행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삼척대학교 교수 107명도 7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 “BBS 민영미디어랩 선정은 종교편향”

대불청, 방통위 미디어랩 분류 선정 기준 해명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랩 분류 선정 기준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8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방통위의 미디어랩 법안은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공영과 민영 미디어랩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공영 미디어랩인 새로운 코바코에는 민영적 성격의 매체사를 그대로 두고, 공영적 성격의 일부 종교방송을 민영 미디어랩에 연계시키려는 방통위의 움직임은

‘특정 의도성’을 가지고 ‘행정 편의주의’를 빗자한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랩법은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기본 취지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코바코가 출범했다.

대불청은 “올해 제정된 미디어랩 법에 개신교와 가톨릭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불교 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

라며 “십지어 부산영어방송, 광주 영어방송까지도 공영 미디어랩을 허가해 주었는데 불교와 원불교 방송은 공영 미디어랩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방송위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미디어랩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정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 도심에서 만나는 ‘깨달음 징검다리’

본각선교원, 9월 7일부터 주말단기출가 운영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행 프로그램이 문을 연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사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한 단기출가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9월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7일과 9월 21일 두 차례 걸쳐 진행되는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은 불교입문, 경기 명상, 참선, 법화경·금강경 경전 강의, 현대과학철학, 불교와 무한수학, 시각선법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다. 교수진으로는 고준환 경시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장·사진), 김원수 흥덕대 교수(바른법연구소), 임종록 한양대 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고준환 본각선교원장은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깨달음은 어떤 것인지 전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9월은 1,3주 두 차례 진행하지만 향후 매주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각선교원은 상설 석가대학원도 9월 1일부터 개강한다. 과목은 ‘금강경과 법화경’, ‘천문지리(풍수)’ 등이며, 김원수 교수와 고준환 원장, 김문용 한국자연지리학회 회장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 ‘마음과 수학’, ‘불교와 예술’, ‘유마경과 승만경’, ‘유불선과 한시’, ‘불교의학’ 등의 강좌도 수강생 신청 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깨달음 징검다리’의 참가비용은 10만원이며 석가대학원은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당 5만원이다. 문의 (02)762-4848 신종일 기자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분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발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분원경, 천지필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